

전북도내 사회적경제 성과 공유

'2023 전북 사회적경제 희망마당' 성료... 시상·기부행사·우수사례 발표 등

전북도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일 전북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서 (원장 윤여봉 이하 경진원)은 지난 8 2023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희망마당



전북도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은 지난 8일 전라북도 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서 '2023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희망마당'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당'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공유회에서는 전북 마을기업 대표 및 관계자 200여 명, 전라북도 14개 시·군 담당자 및 지역 중간지원기관 70여 명이 참석하여 지역 공동체 유대감을 강화하였다. 2023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희망마당은 사회적경제 사업 성과 공유 및 상생·협력 공동체 활동 증대를 통한 사회적경제 화합 도모를 위해 개최되었다. △(1부) 시상, 기부금 전달식 사회적경제기업·중간지원조직 사례 발표, △(2부) 기업 간 교류 및 레크리에이션 등으로 구성됐다. 김관영 도지사의 영상 축사를 시작으로 경진원 윤여봉 원장의 격려사,

(사)전북마을기업협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한 마을 기업에게 시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북도지사표창은 식객한공나물영농조합법인 임상호 대표, 하마마을영농조합법인 양양임 대표, 전북도의장표창은 백련농장영농조합법인 김성숙 대표, 경진원장상은 농업회사법인비즈양주주식회사 박병희 대표가 수상했다. 마을기업 대표들은 "이번 성과공유회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기업이 추구해야 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며 "내년도 한걸음 더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경진원 윤여봉 원장은 "전북 마을기업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전북도, 성장사다리 최고경영자 혁신 포럼 개최

전북도는 (재)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재)전북테크노파크, (사)캠빅종합기술원과 함께 8일 데미호텔에서 성장사다리 기업 최고경영자들의 정보 교류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간의 성과공유와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돌음기업, 도약기업, 선도기업의 최고경영자 170명이 참여해 정보교류, 상호학습, 네트워크 구축하고, 상생협력 문화를 조성해 지역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행사이다.

전라북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체계는 기업규모 및 성장단계에 기초한 지역과 중앙정부 기업육성사업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도모하는 전라북도 대표 중소기업 육성정책으로, 돌음기업 58개사, 도약기업 45개사, 선도기업 67개사가 기술개발과 성장 촉진을 위한 다양한 기업성장 프로그램 지원받아 왔다.

이날 포럼 강연자로 초청된 산업기술기획평가원(KIET) 이정문 이차전지PI(프로그램 디렉터)는 "배터리 산업 동향, 기술개발 및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불안정한 경영환경 속에서도 기술성장을 바탕으로 한 해 동안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기업에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는 행사도 진행됐다. 천세창 기업유치지원실장은 "비·중 무역갈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 세계적 공급망 붕괴 등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다양한 기업육성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지역업체 하도급률 제고 건의

전북도-전건협 전북도회, 광주 광신종합건설 방문

전북도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임근홍)가 익산 남중동과 고창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동주택 건축사업에 지역업체 하도급 다수 참여와 지역자재 사용률 제고를 건의하기 위



전북도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가 익산 남중동과 고창에서 시행 중인 공동주택 건축사업에 지역업체 다수 참여와 지역자재 사용률 제고를 건의 차 지난 8일 광주광역시 북구 소재 (주)광신종합건설 본사를 합동으로 방문했다.

해 지난 8일 광주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주)광신종합건설 본사를 합동으로 방문했다. 전북도와 협회는 해당사업의 시공사인 (주)광신종합건설 본사에서 실무담

당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해당 사업 하도급 입찰 시 지역업체에 입찰참여 기회 부여 및 도내 생산 건설자재 및 장비, 인력 등을 우선 사용하여 줄 것 것과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협력업체 등록을 확대하여 줄 것을 적극 건의하였다. 이 자리에 함께한 전북도 지역정책과 김광수 과장은 "도내 시행 대형 건설현장에 지역업체의 참여율이 높아지면 즉각적인 일자리창출 및 지역의 장비와 건설자재의 소비로 지역경제발전에 긍정적인 효과가 매우 크다. 도내 업체에 대한 보다 많은 배려와 인센티브 지역과 더불어 상생·발전하는 사회적 기업이 되어달라"고 말했다. 이에, (주)광신종합건설 업무담당자는 "주진 중인 사업과 향후 전주일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공동주택 건축사업에 전라북도도와 협회의 건의를 반영하여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를 적극 검토하고 지역과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겠다"고 긍정적인으로 답하였다. /김옥기 기자

싱그린FS, '2000만불 수출탑' 수상... 은탑산업훈장 수훈

종합식품기업 (주)하림의 자회사인 (주)싱그린FS가 제 60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2,000만불 수출탑과 정호석 대표이사가 '은탑산업훈장' 수상하며 2관왕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정호석 대표이사는 2022년부터 하림과 싱그린FS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며, 각사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을 달성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뤘었다.

지난 5일 한국무역협회는 서울 코엑스에서 '수출입국 60년,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어려운 교역 여건 속에서 우리나라 수출 확대 위해 노력한 기업들을 격려하고자 '제 60회 무역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하림의 자회사인 싱그린FS는 2002년 10월 일본 및 홍콩에 첫 수출을 개시, 이후 2009년 수출액 100만불, 2010년

300만불, 2011년 500만불, 2012년 1,000만불, 2023년에는 2,000만불을 달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힘쓰고 있다. /익산=이재훈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는 지난 7일 본부 2층 대강당에서 '공사창립 115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농어업 지속가능한 미래실현 최선

농어촌공, 공사 창립 제115주년 기념행사 개최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는 지난 7일 오전 본부 2층 대강당에서 '공사창립 115주년 기념식'을 갖고 직원 모두가 공사의 안정적인 경영과 원활한 사업수행에 더욱 집중해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정문 본부장은 기념사를 통해 "우리 공사가 시대적 사명을 다하

며 농업농촌과 함께 성장하고 당당하게 미래로 전진하자"고 말했다. 또한 "기후변화와 국제정세 불안이 초래할 식량위기, 농어촌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등 농업 발전을 위협하는 도전과제들을 혁신의 기회로 전환하자"고도 했다. /김옥기 기자

"세계한인비즈니스 유치 환영"

전북상협, "성공적 개최 위해 힘 모을 것"

지역상공인들이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전북유치를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전주 익산, 군산, 전북사남상공회의소로 구성된 전라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윤방섭)는 전북도의 2024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전북유치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상공인들은 성명을 통해 이번 대회 유치는 재외동포 경제인을 비롯한 국내외 기업인들이 가장 한국적인 전라북도를 방문해 우리 전통문화를 느끼고, 더불어 탄소산업과 이차전지, 금융산업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 전라북

도의 경쟁력을 확인하며 접종과 산업이 공존하는 도시의 매력에 흠뻑 빠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북을 세계에 알리고 지역기업들의 경제교류 기반을 확대하는 등 잠재된 전북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방섭 전북상협 회장은 "그동안 대회 유치를 위해 노력하신 김관영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새만금개발공사, 4년 연속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새만금개발공사(사장 직무대행 이정현, 이하 공사)가 국토교통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중 최초로 4년 연속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지난 2020년 인권경영을 도입한 공사는 인권경영 선언을 비롯해 인권경영위원회 운영, 인권경영 매뉴얼 제정 등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경영체계를 구축해 왔다.

특히, 이번 심사에서는 인권 교육 및 공급망 모니터링 등을 통해 내부 직원 뿐만 아니라 외부 이해관계자의 인권 존중 실현에도 노력하고 있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정현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은 인권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선도적인 노력에 대한 성과"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